



벌쏘임부터 화재까지 사고 잇따라

연휴 기간 사고 잇따랐지만 사망자는 없어
112신고 4216건… ‘강력범죄’ 신고는 줄어
조천읍 플라스틱 제조공장서 불 8억원 피해

추석 연휴 제주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속출했다.

연휴 첫날인 18일 오후 3시2분쯤 한라산 관음사 코스 5~15지점에서 말벌이 등반객들을 습격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A(51)씨 등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총 2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부상자를 이송하는 한편 문제가 된 말벌집을 제거했다.

이어 20일 낮 12시53분쯤에는 한라산 동능에서 등반객 김모(50·강원)씨가 넘어져 후두부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김씨는 소방헬기 한라매에 의해 제주시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추석 당일인 21일에는 화재가 잇따랐다. 이날 오후 2시39분쯤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소재 주택에서 차례상 위에 올려진 촛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 주택 6.6㎡와 병풍 등이 소실

되는 등 소방서 추산 125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같은 날 오후 5시58분쯤에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인화성 물질이 많은 공장 특성상 불은 2시간 만인 오후 7시 40분쯤에야 진압됐고, 약 8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도착 당시 공장이 불타면서 바로 옆 LPG가스 탱크가 있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공장이 샌드위치 판넬로 이뤄져 있어 외부에서 물을 쏘아도 불길에 닿지 않아 소방관이 내부에 직접 들어가 불을 꺼야만 했다.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112신고는 총 4216건이 접수돼, 지난해 추석 연휴 때와 비슷했다. 이 가운데 살인과 강도, 성폭력, 가정폭력 등 중요범죄



소방대원들이 21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

신고는 125건으로 지난해(185건)에 비해 32.4% 감소했다. 반면 교통불편·위반 등 교통 관련 신고는 387건에서 416건으로 늘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 18일 0시2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PC방이 영업시간을 초과했음에도 손님 25명을 받았다가 적발됐으며, 다음날 오후 9시22분쯤에는

제주시 연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유증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손님 등 5명이 벌금을 물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추석 명절 중 합치안활동을 추진한 덕분에 전반적으로 평온한 명절 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함께하는 제주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강민성기자

4년 전보다 느려진 제주소방 ‘골든타임’
접수 후 7분 내 도착 65.2→ 57.4%로 하락

제주소방의 ‘골든타임’ 도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타임은 신고 접수 후 7분 안에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한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소방차량의 골든타임 도착률은 올해 7월 기준 57.4%로, 2020년 65.2%보다 하락했다.

연도별로 봐도 2017년 63.5%, 2018년 63.1%, 2019년 64.8%로 60%대 이상을 기록했다.

한병도 의원은 “화재 사고는 분초를 다투기 때문에 소방차량이 골든타임 내에 도착해 신속하게 초동대처를 해야 한다”며 “소방청 차원에서 골든타임 도착률이 저조한 시·도본부에 대한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소방의 화재현장 평균 도착시간(신고접수~소방차 현장 도착)은 2016년 7분25초, 2017년 7분36초, 2018년 7분41초, 2019년 7분10초, 2020년 7분11초였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센터 문 연다

제주시, 내달 중 개소식

제주시에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가 개소한다.

제주시는 다음달 중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소하는 센터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견과 긴급구조,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수행기관은 오는 2023년까지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남이며, 전문 상담가 3명도 채용한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재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필요한 보호와 지원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추석연휴 코로나 진정 국면 지속

수도권 재확산 우려 고조… 제주 영향 ‘관심’

방역당국 “4단계 수준 개인 방역 지켜 달라”

추석 연휴 제주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코로나19 확진 분포를 보이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연휴 기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관광객·입도객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도내 감염 확산 우려는 여전히 상황이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연휴인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날짜 별로는 18일 6명, 19일 10명, 20일 7명, 21일 5명, 22일 오후 5시까지 9명 등이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803명으로 늘었다. 이달 들어선 191명이 확진됐으며 최근 일주일 사이 60명이 감염됐다.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보면 우선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입도객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감염이 18일 3건, 19일 2명, 20일 1명, 21~22일 각각 2건 등 총 10건 발생했다. 도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는 18일 2건, 19일 3건, 20일 4건, 21일 1건,

22일 5건 등 총 15건이 나타났다. 특히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중 ‘서귀포시 초등학교’로 분류된 대정초등학교 집단감염 관련 확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3명, 21일 1명, 22일 오후 5시까지 2명이 추가되면서 대정초등학교 집단감염 관련자는 총 43명으로 늘었다.

도내 감염 확산세는 다소 누그러들고 있지만 추석 연휴 수도권 확산세가 재점화할 기미를 보이며 제주로의 전파 우려가 남아있다. 전국 누적 확진자 수는 이를 연속 1700명대를 기록했으며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4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산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도민들이) 4단계 수준으로 개인 방역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이달 말까지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 노력을 한다면 내달 3일 이후 거리두기를 다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제주 할퀴고 간 태풍 ‘찬투’

감귤 낙상·월동무는 물에 잠겨
식당·렌터카회사 등 침수 피해

14호 태풍 ‘찬투’가 제주를 할퀴고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17일 제주 시내의 한 밭에서 감귤을 키우고 있는 강모(56)씨는 착잡함을 감출 수 없었다.

태풍이 동반한 강풍으로 인해 나무에 달려있던 열매들은 땅바닥에 나뒹굴고, 나뭇가지들도 일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강씨는 “태풍으로 인해 열매가 많이 낙상했고, 남아있는 귤의 가치도 떨어질까 우려된다”며 “제주 시내 밭뿐만 아니라 남원읍에 있는 밭도 피해가 심각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또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웅담2동 소재 A식당 주인도 어두운 표정을 지은 채 청소를 하고 있었다.

이번 물폭탄으로 인해 가게 안 부엌과 식기구가 모두 젖었다. 바닷물을

수차레 닦았지만 여전히 물기가 남아 있었다.

A음식점 사장 가족은 “물바다가 된 가게를 보니 속이 탄다”며 “제주 국제공항 지하차도가 공사된 이후부터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B렌터카와 C렌터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직원들은 빗물을 빼내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었고, 매장 안에 있던 물건들은 밖으로 나와있었다. 또 젖은 물건들을 수건으로 닦거나, 표면에 남은 먼지·이물질을 청소기로 빨아내고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차량을 미리 다른 곳으로 옮겨둬서 큰 피해를 막을 수는 있었지만 정상화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젖은 비닐씨로 폐허가 된 농경지 9월 들어 비닐씨가 빈번히 이어지면서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들녘에 식재한 양배추묘종이 썩어 들어가는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강희만기자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 곳에 중장비를 동원해 배수작업을 진행했지만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대형 펌프차까지 동원됐다.

이와 함께 제주 시내 곳곳에서 떨어진 간판이나 지상에 닿아있는 전선 등 태풍이 휩쓸고 간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월동무의 피해도 극심하다. 13일

부터 내린 비로 인해 밭이 잠겨버렸기 때문이다.

성산읍사무소에 따르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 농경지는 880ha로 추정되고 있다.

성산읍 관계자는 “제주 월동무 생산량의 절반을 성산읍에서 담당하는데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 환영

전기기능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양광)취득과정(주간반)

교육기간 2021.10.04~2021.12.27(3개월, 240시간)
교육시간 09:00~13:00(평일 주간, 일일 4교시)
대 상 실업자·재직자·일 반
교육내용 전기 이론 & 실기, 태양광 이론 & 실기

전기설비 직무능력 향상 과정(주간반)

교육기간 2021.10.04~2021.12.10(2.5개월, 150시간)
교육시간 14:00~17:00(평일 주간, 일일 3교시)
대 상 실업자·재직자·일 반(취기산업직종 종사자 포함)
교육내용 전기 심화 이론, 전기 설비 이론 및 실습(전기(산업) 기사 수준)

커피 바리스타 과정

대 상 실업자·재직자·일 반
교육기간 상시 모집 중
교육시간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자격증 취득 및 창업 관련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시간	대 상	교육내용
1	전기기능사	2021.10.04~2021.12.27	240시간	실업자·재직자·일 반	전기 이론 & 실기, 태양광 이론 & 실기
2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2021.10.04~2021.12.27	240시간	실업자·재직자·일 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이론 & 실기
3	커피 바리스타	상시 모집 중	3시간/회	실업자·재직자·일 반	커피 이론 & 실기, 창업 관련

컴퓨터(OA관련, 전산회계 1급, 2급) 과정

대 상 실업자·재직자·일 반
교육기간 상시 모집 중
교육시간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OA관련(사무자동화, ITQ, 컴활2급), 전산회계 1급, 2급

2021년 제1회 전기기능사실기 9명 응시 9명 합격(100%)
 문*민, 한*남, 강*영, 김*현, 옥*환, 이*식, 정*완, 최*영, 최*혜(총9명)

제주직업전문학교

제주도 서귀포시 81 (삼도1동) 중앙영점 정류장, 진명마로 맞은편064)725-5545 http://www.jejuvs.co.kr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職
 一 員 祚 員 職
누수탐지·방수
 017 포크레인 임대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 아파트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누수탐지·가스식 정전기식 수도배관 누수탐지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작업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만감류 매달기! 다인 굴고리

미리 걸어두고 편하게 매달자! 굴고리 사용 방법
 1.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이후엔 던지기 생략가능
 2. 높은 효율! 굴고리 한 개에 15개 이상 매달기 가능
 3. 미리 작업! 매달기작업 시준 전에 미리 던져 둘 수 있음
 4. 편리한 수거! 수확 후 유인문을 간단히 수거 가능

‘안파고’드는 유인줄 ‘안파고’

+ 굴, 단감, 매추, 사과, 체리, 복숭아, 자두, 배, 호두 등 모든 과수나무의 처진 가지, 늘어선 가지 해결!
 + 원터치&조간편 길이 조절.
 + 가지에 걸고 고정판에 끼우면 작업 끝.
안파고 小 110호(1m), 115호(1.5m)
안파고 大 210호(1m), 215호(1.5m)

까치, 까마귀, 새 쫓을 때! - 다인독수리연

4m플래 세트 (대형연, 소형연)
7m 플래 세트 (대형연)
 질긴 천, 강한 부품
 비수해도 다르다!

굴고리, 유인줄, 유인줄, 이클립 기타 영농자재
DA IN 다인산업(주)
 경부 예천군 보문면 산단길 14-28
상담 및 문의 054-652-3725, www.dainfine.com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